

# 가계의 부채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가계의 신용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1999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조사표본 5246 가계 중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계만을 추출하였으며(1,366가계) 이 중 소득자료가 부실한 가계와 결과의 편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극단치를 지닌 가계를 제외한 611가계의 조사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계부채부담은 월평균부채상환액이 가계의 월평균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가계의 부채부담유무와 부채부담수준(5%급간으로 모두 10개로 구분)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각 집단별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부채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내식비, 광열수도비에 대한 지출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피복신발과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있는 가계는 내식비와 광열수도비 등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액과 지출비중이 더 낮으며 피복 및 신발 그리고 통신비 등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액 과 지출비중이 더 컸다.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부채부담수준에 따라 모두 9개 비목 즉, 내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신발비, 교육비,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통신비 등에서 소비지출구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외식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기타소비지출은 부채부담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구조의 차이가 나는 비목이 가장 많은 부채부담 집단은 부채부담이 40%를 초과하는 집단이며 다음은 부채부담이 25-30%인 가계이다.

소비지출구조와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채부담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채부담의 여·부나 부채부담의 과·소가 소비지출구조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임계 부채부담수준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부담수준이 40%이상인 가계에서 소비지출구조나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잠정적으로 소비지출 구조나 소비지출액에 있어 왜곡을 가져오는 부채부담수준을 40%로 설정하였다. 즉 가계가 과거에 과도하게 이용한 신용으로 인해 부채부담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